

보도시점 2026. 6. 30.(화) 배포 2026. 6. 30.(화)  
결과 발표(14:00) 이후

# 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 추가 지정, 의료 공백 지역 의료접근성 높아진다

- 7월 1일부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선정기관 20개소 추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기관 공모 결과 20개 종합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20개소를 신규 지정하였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다음 세 가지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이다.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하는 예비지정\*도 함께 진행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단체, 정부 등 15인으로 구성하여 지원기관 선정  
\*\* (예비지정 요건) ▲지역응급의료 기관 이상 지정,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혹은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00개 이상

그동안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아쉬움이 있었던 진료권이 있었으나, 이번 신규 지정으로 전남 나주권에도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생겨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선정된 20개

기관에 대해서도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에 대한 성과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병원에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과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안에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을 인상이 적용된다.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진료 성과(24시간 진료, 응급 대응, 진료 협력 등)를 평가하고 성과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종합병원 스스로 의료 역량 및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하여 제도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포괄 2차 종합병원 신규 선정기관

담당 부서	의료혁신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책임자	과 장	임은빈	044-202-1870
		담당자	사무관	구도은	044-202-1873



**포괄 2차 종합병원 신규 선정기관**

연번	시도	중진료권	요양기관명
1	서울	서울동북	혜민병원
2	부산	부산중부	영도병원
3	대구	대구동북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천주성삼병원
4	대구	대구서남	나사렛종합병원
5	대구	대구서남	의료법인 구의료재단 구병원
6	대구	대구서남	삼일병원
7	대구	대구서남	드림종합병원
8	경기	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9	경기	포천시	의료법인 일심의료재단 포천우리병원
10	경기	안산권	의료법인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11	경기	고양권	의료법인 자인의료재단(더자인병원)
12	경기	평택권	의료법인 갈렌의료재단 박병원
13	충남	서산권	당진종합병원
14	충남	서산권	서산중앙병원
15	전남	여수권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16	경북	포항권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17	경북	포항권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선린병원
18	경북	포항권	에스포항병원
19	경북	경주권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세명종합병원
20	전남	나주권	빛가람종합병원